

선군시대 청년문화의 본질적내용

고 정 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전투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담긴 선군시대 청년문화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선군시대 청년문화는 선군시대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청년문화는 번지르르한 남의것이 아니라 고상한 우리의것을 꽃피우는 건전한 문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활기에 넘쳐 전진해나가는 전투적인 문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생활을 알뜰하고 간지게, 문명하게 해나가는 선군시대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입니다.》

사회주의생활문화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생활태도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고 웃으며 맞받아나가는 불굴의 투지와 랑만, 전투적인 투쟁기풍,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담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문화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선군시대는 사회주의의 본태와 대풍모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모든 사람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에서뿐아니라 생활문화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4세, 5세들이 혁명군대의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배짱으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선군시대 청년문화는 선군시대의 이러한 요구와 사회주의생활문화의 본질적특징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구현하고있다.

선군시대 청년문화는 무엇보다먼저 번지르르한 남의것이 아니라 고상한 우리의것을 꽃피우는 건전한 문화이다.

선군시대 청년문화는 선군시대 시대정신의 체현자들인 백두청춘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어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은 선군시대 청년문화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다. 선군시대 청년문화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과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에 영웅적인 투쟁과 값높은 위훈으로 보답하려는 백두청춘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잘 반영되어있다.

백두의 흑한속에서 그들이 가장 즐겨부른 노래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김정은장군찬가》와 같은 열렬한 수령송가, 수령찬가였으며 《조선청년행진곡》, 《타오르라 우등불아》,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을 비롯한 선군시대 청년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반영한 노래였다. 혁명열, 투쟁열이 폭풍치는 전투장들마다에는 백두청춘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이 짙 차넘쳤다.

백두청춘들은 병실을 지어도 빨찌산식으로 통나무를 알뜰하게 다듬어졌고 생활을 해도 혁명군대식으로 정규화적면모를 갖추고 기백있고 절도있게 하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해도 백두의 풀물오른 항일유격대군복차림이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식, 우리 장단에 맞춘 혁명가요, 혁명군가에 발맞춘 군무를 좋아한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도 안온한 꽃방석우에서가 아니라 설한풍이 몰아치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돌격대제복을 입고 동지들의 축복속에 진행한다.

실로 선군시대 청년문화가 창조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의 그 어디를 보아도 혁명하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가 맥박치고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품모가 나래치고있다.

사람들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본태와 대풍모를 훌륭히 꽃피워나가는 선군시대 청년문화야말로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선군시대 청년문화는 다음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활기에 넘쳐 전진해나가는 전투적인 문화이다.

선군시대 청년문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활기에 넘쳐 전진해나가는 전투적인 문화라는것은 그것이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일관된 문화라는것이다.

혁명가는 미래를 락관하는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불태우며 오늘보다 래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혁명승리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함께 비관을 모르고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혁명가들이다.

백두청춘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령도자가 이끄는 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지니고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백두전구에서 한 두해도 아니고 10여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순간의 비관을 모르고 혁명의 노래높이 전진해온 락관주의자들이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돌격대원들이 헤쳐온 고난과 시련의 나날들에는 인간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려는듯 끝없이 계속되던 봉락구간을 한치 또 한치 돌파하던 나날들도 있었고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물동량들을 등짐으로 날라야 했던 간고한 나날들도 있었다.

백두청춘들은 온 갱이 물속에 잠긴 때에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순간순간 불어나는 물우에 때목을 띄우고 그것을 어깨로 버티면서 잠시도 착암을 멈추지 않았고 석수에 범벅이 된 밥마저 물우에서, 때목우에서 먹으면서도 누구하나 격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속에는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혁명동지들과 귀중한 설비들을 구원하고 두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도 몸이 추서기 바쁘게 밀차에 몸을 싣고 강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백두전역으로 다시 달려와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의 시구절을 격조높이 읊으며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킨 돌격대원도 있었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혁명의 노래소리를 순간도 멈추지 않고 웃음과 랑만으로 가득찬 전투적인 문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자기들을 혁명의 전구로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였으며 원수님을 따르면 래일의 승리는 반드시 자기들의것이라는 굳은 확신이였다.

백두청춘들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반영한 전투적인 문화야말로 혁명적이며 랑만적인 투쟁과 생활속에서 청년들을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시대의 멋쟁이, 조국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억세계 키우는 문화이다.

선군시대 청년문화는 다음으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생활을 알뜰하고 간지게, 문명하게 꾸려나가는 생활문화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끗한 환경에서 문명하게 살것을 바라지만 그것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모든것이 풍족하다고 하여 해결되는것도 아니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더욱 힘든 일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혁명적락관주의와 함께 고상한 문화적요구와 지향,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들만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생활을 알뜰하고 간지게, 문명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선군시대 청년문화에는 백두의 청신한 정기를 안고사는 백두청춘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알뜰하고 간진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잘 반영되어있다.

백두대지는 1년치고 따스하고 해빛밝은 날보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 더 많은 곳이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천험의 산속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겨운 건설전투를 벌리면서 생활을 알뜰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백두청춘들은 이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변화한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없는 알뜰하고 간진 아름다운 생활화폭들을 수놓았다.

알뜰하면서도 아담하고 규모있는 병실들, 정양소의 세목장과 식사실, 문화오락실이 험산준령에 자리잡고있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낚시터와 뽕트장까지 만들어놓고 도시부럽지 않는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은 상상밖의 일이다.

그들은 외지고 척박한 백두대지에 260여정보에 달하는 부엽지와 축산기지들을 꾸려놓고 해마다 수백t의 남새와 유채, 콩, 감자 그리고 수십t의 고기와 10여만알의 닭알을 비롯하여 많은 부식물들을 자체로 생산리용하였다.

백두청춘들은 발전소건설전투를 벌려나가는 어려운 조건, 엄혹한 북방의 기후조건에서도 산림조성전망계획을 통이 크게 세운데 기초하여 곳곳에 양묘장을 꾸려놓고 산림조성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선정하고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풍토순화시키면서 지난 10년간 이들이 백두대지에 심어가꾼 나무는 무려 수백만그루나 된다. 그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없는 진실하면서도 알뜰하고 간진 일본새, 살림살이 기풍이 차넘치는 선군시대 청년문화야말로 그 어떤 조건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사회주의생활문화의 본보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선군시대 청년문화의 창조자들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감으로써 숭고한 정신과 전투적인 투쟁기풍,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을 지닌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주인으로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